

다들들에게 희망을

2014. 6호 www.womenfund.or.kr



- | | |
|-----------|--|
| 기획 | 모든 세대에게 건강한 삶을 허하라 |
| 나눔과 공감 |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공간
마을안전, 생각만큼 어려운 일 아니에요 |
| 함께 만드는 변화 | 전국 7개 동네가 나섰다. 우리동네 안전 체크 |

딸들에게 희망을

2014. 6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인 조형
편집인 박기남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4년 11월 30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13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한국여성재단)
디자인인쇄 the Shy Letter 070-8801-6772



2014 만만클럽캠페인, 우리동네 안전체크를 위해
<구리여성회>회원들과 인창중학교 1학년 청소년
들이 뭉쳤다. (사진: 윤강수작가)

2014 <딸들에게 희망을>은 20대 여성들이 모여
창업한 더샤이레터(the Shy Letter)의 편집과 디
자인 재능나눔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사립문

Adieu 2014, Adieu 재단 15년 조형_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03

기획

모든 세대에게 건강한 삶을 허하라 04

내 처지를 알아주니 너무 고맙지, 고마워 05

친구같은 엄마, 건강한 엄마가 될 겁니다 06

모든 세대 여성에게 건강한 삶을 허하라 08

나눔과 공감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공간 10

마을안전, 생각만큼 어려운 일 아니에요 12

함께 만드는 변화

[만만클럽캠페인] 전국 7개 동네가 나섰다. 우리동네 안전 체크 14

소식

재정보고 16

후원현황 18

재단소식 20

한국여성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날에 초대합니다 23

Adieu 2014, Adieu 재단 15년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의 소망과 계획을 적어보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성장시대의 '위험' 경고가 곳곳에서 현실이 되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한 해였으니까요. 특히 세월호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평생 뇌리에 남을 충격적 재앙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때처럼 나이, 세대, 인종, 이념, 정당을 불문하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아파하며 환골탈태를 한 목소리로 외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약속했듯이 항상 기억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미래를 책임지는 멋진 선배가 되기위해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창립 후 여성재단 15년은 정체성을 확립한 제 1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재단이 여성인권 실현과 남녀평등 보장, 돌봄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최초의 민간공익재단으로, 기부자와 여성단체를 포함한 국내외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제도적 안정화와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공공재단의 위상을 확고히 한 시기였습니다. 21세기 초, 세계가 '한국'을 알아볼 정도로 경제와 문화의 위세가 신장되었고 법적 평등의 지위를 획득한 여성들이 자유와 자율과 평등을 추구하게 된 점을 우리 사회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작용도 심각합니다. 성찰과 화해, 관용과 보살핌, 절제와 공생의 가치는 무한경쟁, 무한성장, 승자독식, 돈의 위력이 삶을 지배하는 행동규칙으로 대체되어, 평범한 꿈을 펼치고 싶은 많은 여성과 남성들을 좌절시키고, 강고한 가부장제의 반격(backlash)이 아직까지도 여성들의 삶에 폭력과 장해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난 변화들

을 주목하며 재단은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여성이 답(答)이다(Women are the solution)라는 매력적인 해답을 만난 것은 2010년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배제된 영역들에서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사회와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은 이제 여성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며, 21세기에는 어떤 국가도 인재의 반(半)을 사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남성과 더불어 일하며 여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고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재단은 여성들이 사회적 주체로, 리더로 거듭나도록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꾸준히 지원하고 이주여성, 미혼모, 탈성매매여성 등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단순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도록 응원했습니다.

저는 올해까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단을 떠납니다. 한국여성재단에게 12월은, 금년 한 해만이 아니라 지난 15년을 반추하고 진일보한 단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장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성재단 가족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는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며 부디 강건하시고 안온한 가운데 밝은 새해를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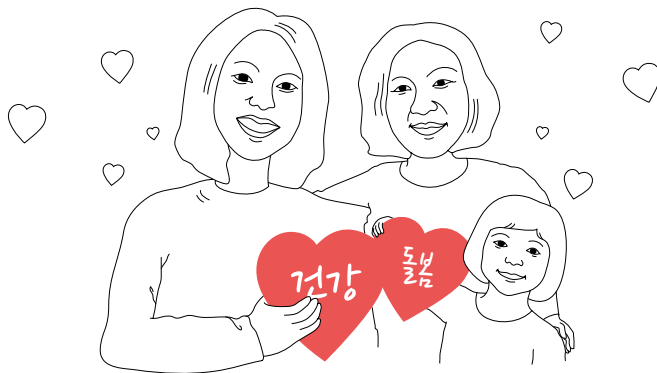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 형

기획

모든 세대에게 건강한 삶을 허하라

가족과 배우자 부양으로 건강을 외면해왔던 여성들,

다양한 세대 여성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 사업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에 용기를 낸 여성들을 소개한다.



기획

모든 세대에게 건강한 삶을 허하라 1



배우자를 간병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지치지않는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진행한 종량구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의 우일심 사회복지사. 그는 지난 8월부터 2~3주에 한 번씩 <황혼공감> 자조모임을 통해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치지않는 가족사랑 프로젝트>는 장기간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의 재충전을 위해 자조모임과 여행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그나사 회공헌재단이 후원하고 있다.

내 처지를 알아주니 너무 고맙지, 고마워

황혼공감 참여자 어르신 이야기

올해 일흔넷이야. 집에 있는 양반은 일흔 일곱이구. 다리가 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관두었어. 주무르니까 또 나온 것도 같아서. 화장한 거? 남한테 표시 안내려구. 혼자 올다가도 아들이나 손자들 오면 걱정할까봐. 아들이 곱게 늙어줘서 고맙다고 하거든.

모임은 8월부터 다녔는데 매주 모이지는 못하고, 우리 양반은 혼자 누워있거나 식사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니까 나는 그나마 나오는 게 편한데.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는 꼼짝 못하고 아예 누워만 있는 사람도 있어. 나오면 마음도 한결 가볍고 간병에 대한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말을 꺼내기가 편하지. 남 앞에서는 차마 못하는 얘기들이니까. 시설에 보내라 해도 꼭 자기가 간병하겠다고. 그런 마음은 다들 비슷해.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지, 그죠? 우리 양반은 약 먹은 지 3년 됐어. 아들이나 딸은 알아보는데, 손자들은 못 알아봐. 점점 더 심해지겠지. 우리 양반은 그렇게 화를 잘 내. 욕도 잘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환자인까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순간 같이 욕을 할 때가 있어. 지나고 나면 후회도 되고 미안하지만, 복지관에 나오면 전문가 선생님이 웃음치료도 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식사도 간식도 챙겨주니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오면 편안해요. 복지관에 와서 식권 나눠주는 봉사를 할 때도 내 얘기를 한 적 없는데 여기 복지사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자기가 겪은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만들어 주고,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지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이랑 9월에 경북공이랑, 인사동 나들이 갔어. 젊었을 때 가보고는 처음이지. 아저 봐, 반지. 인사동 가서 직접 만들었어. 손이 거칠고 마디가 굵지? 우리 양반이 80년대 초에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 요리했어요, 출장요리. 지금은 애들이 조금씩 생활비 주는 걸로 살고 있지만 예순 여섯, 일곱까지 일했어. 하루종일 서서 요리하고, 차도 없어서 손에 가득 들고 택시를 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 열한시 열두시까지 일했어. 우리 양반이 아프기 전에는 집에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국수 같은 걸 대접하곤 했는데. 이제는 초대를 안하니까 섭섭하다하지. 예전에 친했던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가 힘들어. 아무리 친해도 치매환자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 이해를 잘 못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할아버지가 아프니까 나만 힘든 것도 아니야. 우리 애들도 힘들어하잖아. 그제 신경이 자꾸 쓰여. 아직은 괜찮지만 나중에 대소변을 못 가리고 그렇게 되면 많이 힘들어지겠지. 약 먹어도 병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걱정이 돼.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건 생각만 해도 싫어. 소원? 소원이 있다면 우리 양반이 이 상태로만 계속 살면 좋겠어. 더 나빠지지 않고, 지금 감사해. 그리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이런 얘기라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어. **W**

친구같은 엄마, 건강한 엄마가 될 겁니다



지난 11월5일, 모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부산역으로 옛된 얼굴의 방세화님이 마중을 나와주었다. 간단한 점심과 차를 마시며 그는 양육미혼모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일기 쓰듯 풀어주었다.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아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거 같아요. 유방암검사와 산부인과 검사까지. 아이 낳고 갑자기 불은 몸과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결과로 나왔지요.” 대구파티마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검진을 위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여섯 살이나 어린 동생의 도움을 받아야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과 다르지 않은 결과에 낙담하는 눈치였다. 출산 후 갑자기 불어난 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심난함이 얼굴에서 가시지 않는다. 특히 심리검사를 통해 나타난 우울증은 열일곱에 임신을 해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산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그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만 같았다. 다섯 살 딸 소연이의 건강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눈치가 들어가는 게 보여 마음이 무겁다.

반대와 가난으로 범벅이 된 아픈 출산

그의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반대와 안쓰러움, 가난으로 범벅이 된 아픈 출산이었다. 엄마는 중절수술을 권했고 아이아빠와 가족들은 누구 인생을 망칠 거냐는 힐난으로 외면했다. 겨우 수술비용을 마련해 병원을 찾은 때는 이미 6개월이 지났고 세화님은 병원에서 아이의 태동을 몸으로 느끼며 오히려 기운을 얻은 듯했다. “하지만 소연이를 낳은 걸 후회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단단해졌단다.

“지금 스물두 살, 만약 소연이가 없었다면 아직도 방황하면서 가출을 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난한 집, 부모의 이혼, 의지할 곳 없어 친구들 틈에서 지내는 걸 일삼았던 그였다. “소연이를 낳고 아이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치르기도 했어요. 공부에 신경을 쓰는 탓에 밤마다 울어대는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할 때는 가슴이 아팠지요.” 아이가 아이를 낳았냐고, 폐부를 찌르는 비수같은 말들에 상처입은 가슴은 그대로 물어둔 채 울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 앞에서는 결코 울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울고 싶을 때는 화장실에 숨어 울곤 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이와 함께 사는 엄마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에 대해 고민이 시작됐다. 점점 더 커갈 아이와 나이들어가실 엄마, 우리 셋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말이다. “제가 스스로 하려는 독립심이 부족한 편이에요. 엄마가 늘 뭐든지 다해 주시곤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뭔가를 책임져야하는,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의무감이 느껴져요.” 아이와 함께 독립을 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러면 홀로 남으실 엄마 걱정, 그리고 직장을 가지면 집에 홀로 남을 아이 생각에 그냥 우리 셋 뭉쳐 살면서 아르바이트보다는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셔서 자격증취득정보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문의해 두었다.

딸에게 친구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남자친구이야기며, 남편이나 시댁얘기를 하는 또래 친구들보다는 자신의 얘기를 나눌 사람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그에게 절실히 필요했다. “최근에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지부에서 하는 휴먼라이브러리에 간 적이 있어요. 미혼모로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휴먼라이브러리 주인공처럼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울음이 터져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처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았다는 그는 부산에 사는 미혼모들의 자조모임을 준비중이다.

소연이에게 어떤 엄마이고 싶냐는 말에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지만 친구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가 소연이를 가졌을 때, 엄마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기가 너무도 힘들었어요. 믿을 만한 친구도 곁에 없고. 엄마는 성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완고하신 편이거든요. 사춘언니가 사다 준 테스트기로 임신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소연이와는 어릴 때부터 성교육도 해주고 독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친구가 되어 주고 싶어요.” 출산 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몸과 마음. 이제 소연이를 위해서라도 챙겨야겠다고 다짐하듯 말했다. 세화님은 11월에 부산여성회의 한부모센터에서 진행되는 여행에도 신청을 해놓았단다. 아직 한 번도 소연이와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던 세화님, 이번 딸아이와의 첫 여행이 친구로, 또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W**

〈2014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종합검진을 통한 건강실태조사와 긴급의료비지원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와 자녀 100가정 이 전문병원을 통해 종합건강검진과 임상심리전문의의 정신건강검진을 받았다.

모든 세대 여성에게 건강한 삶을 허하라



한국여성재단 한부모여성가장의 의료비지원은 2005년부터 2년여에 걸쳐 CJ홈쇼핑과 함께 한 모금방송으로부터 출발한다. 여성건강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모금주머니를 마련한 것이다. 모금방송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2014년 현재까지 <엄마에게희망을>건강지원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2011년 여성활동가 암치료지원 <최명숙기금>, 2013년 여성치과치료 <여성건강지킴이 프로젝트: 내츄럴엔도텍>, <이주여성과 자녀 건강지원: 하이큐검진네트워크>,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지치지않는 가족사랑 프로젝트: 시그나사회공헌재단>,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치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까지 세대구분 없이 여성건강지원은 더 확장되고 있다. 여성건강지원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와 가치 등을 김명희 한국여성재단 배분위원(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소중한 기부금, 한부모여성가장들의 건강을 지원하다

“2007년부터 여성재단의 건강지원사업을 함께 했지요. 그 당시 여성재단이 여성 건강지원을 위해 모금을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김명희 위원은 무엇보다 여성재단의 건강지원은 모금을 통해서 모은 귀중한 돈이니 만큼 무엇보다 쓰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여성재단 건강소위원회는 질병에 대해서도 치료방법도 잘 알아야 하고 또 치료를 잘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고 비용이 적절한지, 또한 그 방법이 최선인가 하는 것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재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일터로 복귀,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지원의 기준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다. “개인당 300만원이 최고 지원액이에요. 그러다보니 만성질환의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제외되기도 해요.” 여성질환의 대부분은 자궁, 난소 유방 등 해부학적으로 여성 신체질환이 가장 많고 특히 올해부터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예전부터 치과치료신청은 많았다고 한다. 치과치료는 보험급여도 많이 지원되지 않기도 하지만 환자 스스로 시급하게 치료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질병이기도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치료할

업무를 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건강지원을 신청하는 여성들은 늘 많았다. 그리고 아파서 발견할 때는 너무 늦을 때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건강지원사업에 또 다른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른 아닌 예방지원이다. “비용에 있어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올해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에게 종합건강검진과 심리검진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누가 봐도 양육미혼모는 혼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는 분들이죠. 누구보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은 건강지원사업을 하며 여성재단이 느껴왔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시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검진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50만 원 정도 한도내에서 상담이라든지 추가검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생애에 걸쳐 몸과 마음의 건강은 중요하다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 심리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보면 몸도 아프게 되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죠.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지요. 아이를 가져서 낳아서 키우는 양육미혼모의 환경자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한부모여성가장들이 자신의 건강만을 우선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다. 자녀가 아프게 되면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하기 어렵거나, 일을 하느라 제대로 아픈 아이를 돌보기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성가장의 아이의 진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미 한국사회는 전 인구의 13%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100세 시대의 건강이 비단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성노인들은 배우자를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 노후의 삶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원하게 된 사업 중 <지치지않는 가족사랑 프로젝트>는 배우자간병을 하느라 지친 어르신들의 자조모임과 여행을 통해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있다.

인터뷰말미, 김명희 위원이 힘주어 말한 또 한가지가 있다. “단체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성활동가들의 건강도 중요해요. 1999년 출범한 한국여성재단의 존재 이유, 바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줄 단체들의 비빌 언덕으로서 여성재단이 현장의 여성활동가들의 건강지킴이로 늘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W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공간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은 2009년부터 전국의 여성시설과 단체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해피바스 해피스마일: 화장실 및 욕실 개보수〉사업과 〈아리따움인유: 휴게실, 교육장 등 여성친화공간〉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주여성과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실을 25년간 진행하며 지역단체로서 활동해온 마산 지역 가톨릭여성회관은 비만 오면 습기가 차고 비가 새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속에 지난 2011년 시설개보수지원을 받은 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활기와 관심 속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시설개보수지원은 공간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닌 단체를 살리고 지역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재능나눔으로 또 하나의 힘을 보태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인테리어지원팀. 그동안 이 사업을 현장에서 함께 한 인테리어지원팀의 윤석미님을 만났다.



❶ 인테리어지원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아모레퍼시픽 그룹 내 주요 브랜드의 매장 개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브랜드별 유관부서들과 시공 협력사들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디자인 매뉴얼을 준수, 시공감리, 시공단가를 검토하는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지원부서입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단체가 선정되면 제일 먼저 인테리어지원팀이 바빠집니다. 지방에 있는 시공 협력사를 선정해서 단체와 연결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요. 아모레퍼시픽 인테리어지원팀이 실제공사를 담당하는 시공 협력사와 소통하며 협업을 돕고 있습니다.”

❷ 인테리어지원팀, 시공협력사, 단체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일인만큼 의견을 조율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 같아요.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활동가들이 공간을 바꾸고 싶은 부분은 많지만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에 자원과 인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지요. 해서 시공 협력사분들과 인테리어지원팀은 늘 고민하고 최선의 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늘 생기지만 계속해서 의견조율을 해요. 도움주시는 시공 협력사분들과 활동가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가능하죠.”

❶ 여성시설 개보수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인가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고, 앞으로 계획한 많은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겠지요. 물론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참 근사하다, 좋다 하는 첫 느낌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또 회원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들이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❷ 직접 만난 단체와 시설에 대한 생각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접해 본 경험이 없었어요. 생각이나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심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한 공간은 많이 열악했고, 활동가와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이 공간은 너무나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만큼 지원이 절실했어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런 기회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❸ 함께 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모습은?

“이 사업 자체에 열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지요. 그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하지요. 공사 완공 후에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일에 대한 보람도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픈식에서는 이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느껴져요. 시설개선사업이 여성시설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큰 보람과 만족감을 저 역시도 많이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간의 변화를 넘어 여성들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미님은 시설개선사업이 확장돼서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무엇보다 사업이 널리 알려져 정말 손길이 필요한 곳, 지원조차 할 여유가 없는 단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랐다.

올해 새길공동체양지터(부산), 순례자의집(경북), 마산여성회(경남), 안양YWCA(경기), 청주여성의전화(충북), 경주애가원(경북), 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 함께하는주부모임(대구),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경기)가 인테리어디자인팀이 재능나눔과 시공 협력사의 도움으로 새롭게 공간을 단장했다.

6년 동안 이러한 변화가 전국의 지역과 공간에서 일어났다. 활동가들이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신나게 놀며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나누는 공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W



마을안전, 생각만큼 어려운 일 아니에요



조미선님은 대전에 있는 <풀뿌리사람들>에서 일하는 활동가다. 그는 2년간 서울에서 직장 다닌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토박이다.

그가 활동하는 <풀뿌리사람들>은 여성재단 지원으로 올해 <아이가 안전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우리동네> 사업과 이번 만만클럽 <꼼꼼히 살펴보는 우리동네 안전> 캠페인도 진행중이다. 주택밀집지역인 석교동과 아파트밀집지역인 관저동의 주민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알짹>과 <해뜰마을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안전사업을 펼치고 있다.

안전마을에 꼭 필요한 보물과 같은 사람들

“안전이라는 단어 하나를 놓고도 각자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다른지 몰라요.” 미선님은 석교동 주민 150명이 한자리에 모인 ‘내가 생각하는 우리동네 안전’에 대한 대토론회 얘기를 들려주었다. CCTV 설치 민원부터 길에서 만나는 아이에게 말걸기 등의 행동지침까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고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어르신들도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니 중간에 만류해야 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는 후일담을 들을 수 있었다. 토론회 이후 각 마을에서 골목길 하나 하나 발품을 들여 만든 석교동, 옥계동, 관저동의 마을안전지도가 완성되어 웹상에서 검색이 가능해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동네를 다닐 때 혹시 모를 위험에 대처하도록 문구류로 제작되어 아이들의 손에 항상 들려져 있다.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길을 따라 안전한 장소, 위험한 장소, 안전지킴이 가게, 마을보물(사람)이 빠곡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중 마을보물이 눈에 띄어 물었더니 아이들이 선정한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사람이라ಂದ.

그동안 마을사람들과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의 귀결은 항상 공동체였다. 미선님은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양육의 어려움, 어르신들의 고립, 청소년 비행 등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많은 것들은 마을이 돌봄 공동체성을 회복하면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만만클럽 캠페인을 통해 새삼 이웃관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캠페인에 참여하였던 아이들은 어두운 골목, 쓰레기, 학교에서의 상급생들, 술 취한 어른들, 좁은 골목에서 일어나는 사고 등을 안전하지 않은 요소로 꼽았다. 아이들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제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마을안전 활동에 열심이었던 엄마들은 요즘 만나기만 하면 '다음에 뭐하지? 우리 동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가 더 있지?'하며 동네일에 부쩍 관심을 보인다. 내 아이 안전이 걱정되어 시작하게 된 마을 활동이 이젠 남의 아이도 보이고, 동네를 배회하는 아이에게 말부터 걸게 됐다. 미선님은 여성재단과 함께 한 2014 만만클럽 캠페인을 통해 숨어있던 '주민들의 참여와 변화 가능성 발견'을 가장 큰 성과로 친다.

마을과 함께 하는 그녀의 따뜻한 나눔

마을안전 활동은 미선님에게도 변화를 가져 왔다. 평소에는 지나치던 길목에 있는 그냥 '가게'로만 기억되던 곳이 유진꽃집, 씨티세탁소, 우리부동산, 주공마트로 보인다. 퇴근 길 주공마트에 두부 사러 들른 날에는 주인아저씨의 고향도 알게 되고 자녀가 몇인지도 듣게 되는 이웃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는 미선님을 보며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는 이번 만만클럽캠페인 뿐만 아니라 2014년 100인 기부 릴레이 새내기 이کم이 기부자이기도 하다. 여성재단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올해 이کم이 제안을 받고선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재단의 필요성과 활동을 주변에 알릴 수 있어 스스로 대견했다며 활동 소감을 전한다. '여성재단이 취약계층 여성과 마을지킴이로서 주민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바람을 전하며 긴 머리를 쓸어 올리며 웃는다. 소아암 환우를 위한 머리카락 기부를 위해 열심히 머리를 기르고 있는 미선님, 그는 여성재단 대전지역 홍보대사로서 손색이 없다. **W**



전국 7개 동네가 나섰다 우리동네 안전 체크



2014년 한국여성재단은 동네주민과 함께 하는 <꼼꼼히 살펴보는 우리동네 안전>으로 만만클럽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0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 7개 지역의 단체들(서울여성회영등포지회, 은평마을N도서관, 구리여성회, 안산우리동네방과후지역아동센터, 대전풀뿌리사람들, 대구북구여성회, 부산여성회)과 주민들, 아이들은 범죄예방환경도시설계(셉티드CPTED)* 체크리스트를 손에 들고 직접 동네안전을 꼼꼼히 살폈다.

범죄예방환경도시설계 셉티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서구사회에서 가해자 엄벌이나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의 한계에 봉착하자, 지역사회의 공간구조 즉 주거환경을 개선, 디자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마을을 안전하게 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이번 마을 안전을 위해 학교, 아파트, 상업시설, 공원 등이 안전한지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번쯤 겪게 되는 바바리맨의 추억

동네를 돌며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있는지(감시성), 범죄의 의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창이나 가스배관 덮개 설치가 있는지(접근통제), 놀이터 등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활동성강화), 건물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유지관리)를 주요하게 체크하면서 우리 동네의 모습이 어떠한지 직접 경험했다. 낮에 보던 풍경들이 밤에는 사뭇 달랐고 꼼꼼히 살펴보니 의외로 안전하기도 해 안심도 되었다.

“동네에 살다보면 한번쯤 겪게 되는 바바리맨의 추억이 있지요. 오래 살아온 동네여서 익숙했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 왠지 경각심도 생기네요. 놀이터가 동네 한 가운데 있어 주변 집들이 감시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나무가 무성해 잘 안보이고 놀이터가 어둡네요.” 어른들에겐 익숙하지만 아이들에겐 위험하겠구나하는 생각도 든다.

“무엇보다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와 내 주변, 우리 동네까지 넓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동네’가 아니라, ‘내 집 앞’이네요. 내 집 앞부터 청소하고 낡은 시설이 없는지 보수하고 골목 가로등을 살펴야겠어요.” 동네를 다녔본 주민들은 관심과 더불어 해결방안까지 적극적이다. “공터로 방치하고 사용하는 건 위험한 것 같아요. 그 안쪽이 청소년들의 공공연한 흡연구역이 되고 있어요. 구청에 연락해서 담장과 구석의 쓰레기를

정비하라고 민원을 넣어야겠어요.”

“애들 3~4명이 지나가면 어른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런 시선이 싫어서 결국 PC방을 가요. 여자애들은 PC방도 싫어서 카페를 가요. 돈이 많이 들지요.” 어른들이 이격공간을 막고 담장을 높이고 방범창을 해야 한다고 꼼꼼히 적은 반면 아이들은 “그럼 오빠들은 어디로 가요?”라며 걱정을 한다. 누구만을 위한 동네가 아닌 모두를 위한 동네를 만드는 게 필요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정기기부자 1만명 클럽(만만클럽)을 통해 폭력없는 사회,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지원합니다. *만만클럽의 정기기부자에게 우리동네를 살펴 볼 수 있는 안전조사 수첩을 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한때 미관상의 이유로 유행처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담장을 없애기도 했지만 반대로 안전에 구멍이 생겼다. 아파트 놀이터는 대부분 시끄럽다는 이유로 한쪽 구석에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한가운데 놀이터가 위치한다면 아파트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셉티드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셉티드는 물론 동네 안전을 체크하고 검사하는 것, CCTV 등 기계적인 감시만으로는 지역사회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동네주민들의 관심과 만남을 통한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 우리의 관심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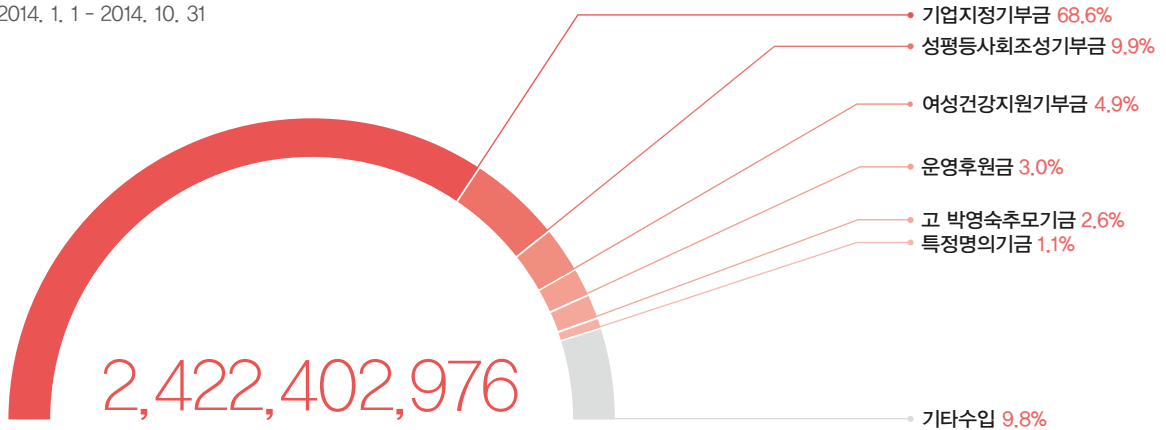
무엇보다 2014 만만클럽캠페인*에 참여한 동네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네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과 책임감이 생겼다. 막연한 폭력피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함께 모여 우리 동네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서로 얘기할 수 있었다. 물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이번 캠페인에 인창동 3개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구리여성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동네를 조사하고 동네를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평마을N도서관은 청소년들과 함께 응암동을 돌며 동네 안전지도를 만들어 보고, 안산의 우리동네방과후지역아동센터는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함께 놀이터 셉티드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미 서울여성회는 셉티드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청원운동, 안전마을 만들기를 위한 공간마련, 안전마을 예산분석 등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위험하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금지와 경고의 말들보다 동네가 온통 놀이터인 아이들에게 안전을 책임져 주는 모습! 마을안전의 출발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관심이 지속되는 한 동네는 오랫동안 안전한 품이 되어줄 것이다. **W**

수입

기간

2014. 1. 1 - 2014.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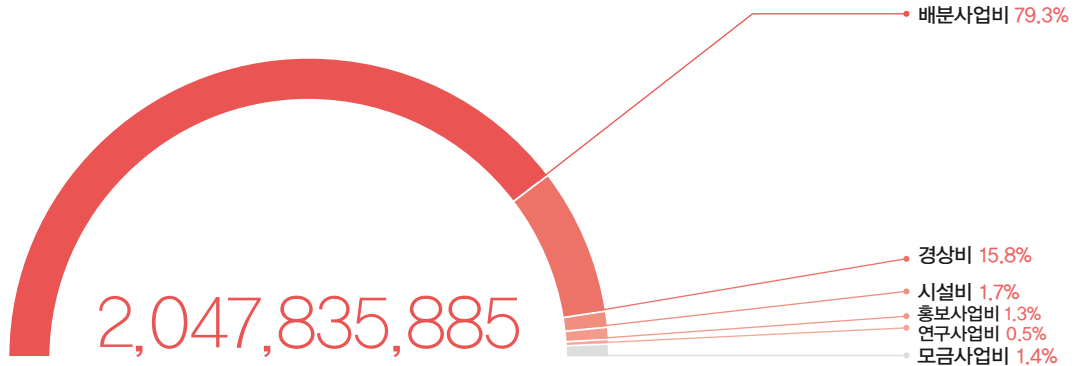


항 목	내 용	금 액 (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62,336,442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안전, 안심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콩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240,531,503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19,395,000
특정명의기금	고사리손기금, 봄빛장학기금, 정희경기금	27,012,000
고 박영숙추모기금	1주기 박영숙 추모사업 기금	63,39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업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71,55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238,188,031
총 수 입		2,422,402,976

지출

기간

2014. 1. 1 - 2014. 10. 31



항 목	내 용	금 액 (원)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경비	27,825,840
배분사업비	<p>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p> <p>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자녀, '엄마에게 희망을' 여성활동가건강지원사업</p> <p>· 다문화아동 외가집 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p> <p>· 미혼모 자립지원사업 (CARL MARKS FOUNDATION)</p> <p>· 불빛장학금(탈성매매여성장학사업)</p> <p>· 여성건강지킴이 Project(내츄럴엔도텍)</p> <p>·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p> <p>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p> <p>·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긴호흡 (교보생명)</p> <p>·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p> <p>· 기업지정사업 등</p> <p>사회적돌봄사업 · 안전안심우리동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화생명)</p>	1,623,341,704
홍보사업비	소식지, 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26,344,384
연구사업비	여성회의 기획 및 진행	11,108,800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23,583,457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5,631,700
총 지 출		2,047,835,885

2014년 9-10월 기부자명단

ㄱ (주)금강데코 강경림 강경희 강기숙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덕희 강도연 강명숙 강명연 강명진 강문영 강미라 강미주 강민아 강병희 강보숙 강보은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혜 강연호 강원화 강은나 강인순 강재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진애 강철심 강태리 강현선 강현욱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효선 강희숙 경춘옥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복신 고영아 고영주 고유지 고윤설 고은정 고주형 고현칠 고희경 고희숙 공영숙 공옥분 공인자 광영선 광용규 광은숙 광지혜 광희민 광희환 구덕도 서관친구들 구민수 구본경 구상권 구영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홍분 구태희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기석 권난실 권미애 권민영 권민정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민 권영선 권영애 권영옥 권오일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철 권혜경 권혜영 권희숙 김갑순 김강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민 김경석 김경순 김경숙 김경순 김경식 김경식 김경아 김경애 김경옥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애 김경환 김경희 김계숙 김공태 김광미 김광수 김광옥 김광웅 김광이 김광자 김광제 김광하 김규식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근애 김근래 김가상 김가선 김길아 김나리 김나영 김남옥 김남주 김남호 김다솔 김다영 김다울 김대규 김대승 김대웅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협 김동식 김동현 김동호 김동희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만환 김매화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의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하 김명혜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문희 김미경 김미영 김미림 김미숙 김미애 김미희 김미옥 김미자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민진 김민희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연 김보영 김복철 김복자 김봉경 김봉일 김분기 김상분 김상순 김상옥 김상진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석준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화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보 김성숙 김성원 김성철 김성진 김성태 김성호 김세화 김세희 김수경 김수미 김수민 김수민 김수열 김수영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미 김순복 김순애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승철 김시은 김사진 김산현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규 김영근 김영길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진 김영아 김영옥 김영자 김영주 김영채 김영철 김영하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은 김옥천 김용 김용관 김우솔 김우향 김운주 김유미 김윤경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근 김이자 김인경 김인섭 김인수 김민숙 김민숙 김민순 김민자 김민준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민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운 김재춘 김재춘 김재현 김재현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미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에 김정원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훈 김정희 김중덕 김중순 김중주 김중화 김중희 김주미 김주영 김주원 김주현 김주현 김준순 김준아 김준희 김지란 김지석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현 김지행 김지혜 김진규 김진근 김진명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원 김진일 김진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창희 김춘지 김춘희 김태식 김태순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학명 김한성 김해조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관 김현/김민정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혜은 김혜정 김혜진 김홍자 김효선 김희경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ㄴ 나문용 나상례 나성주 나성희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길현 남영순 남미정 남신석 남윤인순 남정민 남진숙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원 노은숙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형준 노혜진

ㄷ 대상주식회사 도이현 도현철 동고은 두석호

ㄹ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인혜 류춘희 류대환

ㄴ 마경희 마선자 마정운 매키열 명진숙 모은영 모혜자 모희현 몽골여성재단(MONES) 문경숙 문경철 문경현 문금주 문길화 문명숙 문영옥 문미란 문보경 문봉순 문세미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제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지영 문진석 문재희 문희영 민가영 민규석 민무숙 민옥기 민형태 민희진

ㄷ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광수 박경숙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후 박규리 박근희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길선 박대근

박동렬 박동연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요진 박미라 박미향 박미화 박민숙 박민영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보환 박사용 박삼숙 박상봉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인 박선화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영 박수진 박숙희 박순공 박순규 박순옥 박승균 박승일 박승진 박승호 박신규 박신연숙 박애경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심 박영아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순 박옥필 박용분 박용삼 박용선 박용안 박용호 박은숙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근 박정례 박정숙 박정순 박정영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순 박종우 박종호 박주희 박준영 박준호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진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범 박찬주 박재용 박춘애 박춘순 박태근 박현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화순 박효숙 박홍철 박홍희 박희선 박희숙 박희옥 방정애 방성희 방윤혁 방경주 배선희 배소정 배수경 배숙일 배영옥 배종학 배한영 백경남 백경자 백기덕 백명임 백부서 백순애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진영 백형철 변성윤 변영선 변영희 변용태 변정옥 변형석 복진수

ㄴ 사단법인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덕순 서동규 서동진 서미경 서미석 서민정 서선숙 서수남 서숙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유순 서정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진숙 서현숙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영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길자 선은주 선진국 설경종 설영수 성경진 성경애 성경화 성경정 성용철 성은순 성인정 성정현 성현녀 성향주 소옥녀 소희로자 손석희 손동근 손만순 손미영 손바다 손별 손병준 손복선 손상호 손석철 손순연 손입구 손연숙 손영숙 손영애 손재광 손정길 손직석 손진근 손하늘 손현숙 손현옥 송경희 송기옥 송기원 송다영 송미경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희 송서령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애숙 송윤희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재용 송정섭 송정아 송정에 송주연 송지영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송희순 송수정 신디은 신동서 신동철 신명순 신미숙 신미순 신민자 신봉근 신봉남 신선미 신상태 신소영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유진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재애 신홍은 신지원 신진남 신진선 신현정 신현철 신혜숙 신희숙 신희순 신희희 심경자 심미영 심복길 심숙경 심영애 심영희 심은주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숙 심혜경 심효연

한국여성재단 21

영화로 맺은 인연, 〈짧은 여행 키포함〉으로 함께하다

과연 갈 수 있을까? 여행이 결정되고 나서도 아주 먼 일처럼 느껴졌고 실감이 나지 않았다. 1년 내내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느라 정신없는 10월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을 기다리는 설렘보다는 가기 전에 업무를 가능한 많이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안한 마음을 채 떨쳐내지 못한 채 대만에 도착했다. '여성영화제'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낯익지만 어색한 사람들이 함께 보낸 5일, 21회를 맞는 대만여성영화제를 방문해서 여성영화제에 대한 새로운 기운을 느껴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영화제에서 벗어나 '쉽'그 자체에 충실하며 뒤엉킨 생각들을 덜어냈다. 가장 바쁜 시기의 여행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놓치며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 환기시키는 기회를 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 대구, 서울, 인천 각 지역에서 여성영화제를 준비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은 이번 쉽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서로 나누고 싶었던 경험과 이야기들을 이번 여행을 통해 나눌 수 있었다. 5일이란 시간은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하기엔 짧았지만 여행후 서로의 영화제를 방문하며 이야기들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필요했던 쉽, 반가운 사람들, 즐거운 여행이었다.

권나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4 짧은여행키포함 참가자

한국여성회의 개최, 여성운동가 80여명 한국여성수련원에서 뒀다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10월 17일~18일 한국여성수련원(강원도 강릉 소재)에서 2014 여성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 여성운동의 전환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한국여성회의는 전국의 여성운동가와 연구자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2010년대 한국 여성운동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지적하고 소통과 연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지난 여성운동의 중점 전략이었던 제도화운동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주의 교육(Feminist Pedagogy)의 강화를 제기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가에 따라, 향후 여성회의는 여성주의 학문과 현장의 운동성을 연결하고 다양한 여성주의를 소통하게 하는 플랫폼으로서 한국여성재단이 2~3년 단위로 정기 개최하며 매년 브릿지 모임을 통해 주제와 논의의 성과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2014 다문화아동 외가방문지원사업 최종보고회



지난 11월23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난 여행에 참여했던 20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일상의 안부를 나누며 하노이·호치민 여행사진을 바라보고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엄마 나라’를 함께 방문하고 외가 가족들을 만나 가족 간의 유대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2014 윈크페스티벌, 우리는 같이하면 하나입니다



다문화여성들의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진 ‘2014 희망날개 윈크페스티벌’이 지난 10월26일 서울 나루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응원하는 윈크페스티벌은 다문화여성들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문화역량을 선보이는 행사로 올해 4회를 맞았다. 다문화여성 커뮤니티와 가족, 다문화단체를 비롯해 총 500여명이 참가했으며,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다양한 국가의 전통춤과 난타, 전통 악기 공연, 팬티마임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 봄 문화기획자양성과정이 개설되어 이 과정에 참여한 다문화여성들이 페스티벌 기획에 참여해 기량을 맘껏 선보였다.

캠퍼스와 함께 한 나눔특강



권민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위원(유니타스브랜드 대표)이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을 찾아 나눔 특강을 했다. 지난 10월 22일, 손승영 교수의 여성학시간에 이뤄진 이날 특강 〈짜투기로 살 것인가? 나답게 살 것인가? I'm BRAND〉는 자기답게 사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20대 청년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내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달라’는 권민 대표는 진정한 ‘자기다움’이란 무엇인지 ‘나답게 살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날 특강은 올해 100인 기부 릴레이 이كم이로 활동한 손승영 교수의 초대로 이루어졌으며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너희 꿈에 날개를 달아줄께, 2014 희망멘토링 수료식

LG이노텍 임직원 및 다문화가정 자녀 1:1 멘토링사업 ‘2014 희망멘토링’이 11월29일 서울스퀘어에서 수료식을 진행한다. 2014 희망멘토링은 ‘멘티 꿈 찾기’ 주제로 멘토 20명, 멘티 22명이 캠핑, 문화체험, 사업장 견학 등의 다채로운 활동들로 4월(발대식)부터 진행됐다.



나는 엄마다, 나는 건강한 엄마이고 싶다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실태조사 및 방안〉 포럼 개최

한국여성재단이 〈양육미혼모·자녀 건강실태조사〉를 통해서 바라본 자녀양육 및 정책지원 방안〉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1월19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2014년에 진행한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나타난 양육미혼모건강실태를 김명희 연구부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여성재단 배분위원)과 박윤아 임상심리전문가가 발표했다.

양육미혼모 대부분 혼자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며 우울증에 시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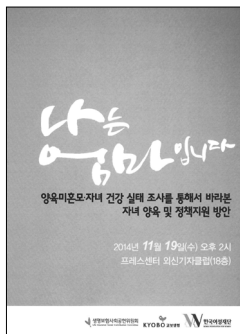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에 참여한 양육미혼모 중 일정한 고정 수입이 없는 가정이 20%로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4년 2인 가족 최저생계비 1,051,000원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양육미혼모 가정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사업 신청자 중 약 70%가 건강검진 경험이 전무할 정도로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양육미혼모는 산전관리나 산후관리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95% 이상이 정신적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양육미혼모가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하며 과거에는 없었지만 현재 우울증 및 정신질환이 많다는 것은 출산과 양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엄마의 건강, 곧 아이의 건강

2부 패널토론에서 정진주 박사는 “저출산으로 아이 낳기를 장려하면서도 정작 출생한 아이와 엄마에게 이 사회는 너무 냉랭하다. 우울증의 원인중 대부분이 빈곤임”을 밝혔다. 김은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금지부 대표는 “양육미혼모와 아이의 건강지원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국가나 사회는 영아유기, 입양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미혼엄마들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보다는 이미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입양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쟁으로 흐른다. 사회적 편견을 넘어 차별로 느껴져 힘들다”고 말했다.

국가가 저출산의 문제를 고민하고 출산율을 올리려는 정책마련보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하는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 오늘 포럼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양육미혼모·자녀 건강 실태조사를 통해서 바라본 자녀 양육 및 정책지원방안〉 자료집: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홍보출판물게시판



한국여성재단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날에 초대합니다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11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초 대 글

한국여성재단이 새천년을 준비하며 첫 발을 내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는 자리에 귀한 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조형

이사 | 김효선 박경수 신창재 이경순 이광희 이수형 이철순 이혜경 장필화 조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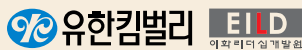
프로그램

- 11:00 축하공연
- 11:15 환영사 및 축사, 내빈소개
- 11:25 한국여성재단 15년 성과보고
- 11:35 감사패 증정
- 11:45 이사장 이취임식
- 12:00 오찬

주최



후원



참가 및 후원문의 02-336-6463

후원계좌
온라인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
www.womenfund.or.kr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4년 한 그루의 나무로 시작해
우리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숲을 일궈온 30년
우리는 이제 사람들 가까이에서
어디에서나 매일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일굴 수 있는
작은 숲을 도시 곳곳에 만들려 합니다
집 앞에서, 학교에서, 동네 공원에서
늘 사람과 함께하는 작은 숲들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더 큰 숲으로 커갈 것입니다